

인성 연계
읽길쓰와 함께하는

제4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 수상 작품집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 연계
읽건쓰와 함께하는

제4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수 상 작 품 집



인천광역시교육청

여는 글

인천 교육은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를 뿌리로 삼습니다. 읽는 것은 세상을 만나는 일이고, 걷는 것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며, 쓰는 것은 만난 세상을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책에 실린 동시들이 그 증거입니다. 어린이들은 책에서 읽고 길에서 본 것, 마음에 담아 둔 것을 시 한 편으로 피워 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자리, 친구와 주고받은 말, 어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지구까지 – 일상에서 걸어 올린 이야기가 저마다의 목소리로 담겼습니다.

동시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글입니다. 그 정직함이 곧 바른 인성의 시작이라고 믿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읽·걷·쓰」와 인성교육을 나란히 놓고 이 공모전을 이어 왔습니다.

올해 공모전은 전국의 어린이뿐 아니라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사는 곳도, 날마다 듣는 말도 다른 아이들이 우리말로 시를 썼고, 그 가운데 스무 편이 미래로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한 「읽·걷·쓰」가 전국의 교실을 지나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린 쉰 편은 시를 잘 썼다는 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눈여겨보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읊조린 태도에 드리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다섯 편은 동요로 만들어 학교와 가정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읽고 걸으며 쓴 시가 노래가 되어 다시 아이들의 입에서 불릴 때, 「읽·걸·쓰」는 비로소 한 바퀴를 돌아 완성될 것입니다.

상을 받은 어린이는 물론, 한 편 한 편 정성껏 써 준 모든 어린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이들 곁에서 함께 읽고 함께 걸어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차례

● 대상 1편

레드리본 맛집	박선우	10
---------------	-----	----

● 올바로상 3편

우리 집 의자는 다 알고 있다	김가빈	12
개구리 물통	황채연	16
건언혁	권은혁	18

● 결대로상 6편

금처럼 반짝이는 강	이도은	22
사춘기	송희수	24
내 똥이 네 똥이 되는 날	원울휘	26
시 짓기	정소울	31
새롭게 만나!	김채민	32
말 되는 소리	이로운	34

● 세계로상 20편

녹아내리는 이불	장사운	38
선생님께 달린 사과	이시현	41
마음의 안테나	임소운	42
할머니와 고추밭	장민경	44
새싹	조영우	46
독도와 우리집	박신혜	48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장하우	50
딱지	허은강	54
칭찬 시장	정루아	55
상처와 상처	황서운	56
손톱	김서준	58
어른들	허다운	60
왕할머니와 나	조민채	62
별뿔	류현아	65
누나	박세환	66

● 세계로상 (이어서)

꼭 그렇진 않아요	오윤호	68
박물관은 거대 일기장	안도현	70
하늘의 가로등	김재이	72
안경 속 엄마 아빠	김채아	74
방패	최지우	76

● 미래로상 20편

예전엔 토끼 지금은 거북이	신한결	78
여행	허다원	80
내 동생	김산	81
나의 온기	김채민	82
네잎클로버는 여유다	박서안	84
평등한 세상	이해리	86
터져도 삼각 김밥	전채은	88
김치와 쌀국수의 나라	심소윤	90
마니또	엄시하	92
기후 딱지	문서원	94
나무의 옷장	김예린	96
어른들은 몰라요	김도하	98
다시 잡은 연필	권소연	100
별빛	신민아	104
신호등 할아버지	유제이	106
가족들과 아름다운 바다	이수민	108
우리는 형제	권순환	110
세상 어디	신수현	112
우리 아빠	김가령	113
바람은 어디 갔을까?	황예린	114



제 4 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대상

1편



레드리본 맛집

박선우 동산초등학교 2학년 | 서울특별시

어젯밤 모기 손님들이 나를 찾아왔다.

선우네가 맛있대.

진짜 맛있대. 어서 가보자.

하룻밤 사이에 소문나 맛집이 되었다.

레드 리본 여덟 개나 받은 맛집.



제 4 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올바로상

3편



우리 집 의자는 다 알고 있다

김가빈 갈매초등학교 3학년 | 경기도

우리 집 식탁에는
의자가 네 개 있다.

아빠 의자는
밤마다 늦게 앉는다.

엄마 의자는
앉았다 일어났다
제일 바쁘다.

내 의자는
밥풀 하나를 달고 있고

동생 의자는
오늘도 뒤로 삐뚤어져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몰랐는데

모두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의자 네 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빠 의자가 먼저
꿈, 하고 말할 것 같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다고.

엄마 의자는
괜찮다고
등을 토닥일 것 같다.

동생 의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또 처음부터 말할 테고

내 의자는 아마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다.

오늘 저녁
엄마한테 괜히 짜증 났으니까.

나는 잠자러 가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엄마 의자를
내 의자 가까이
살짝 당겨 놓았다.

의자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식탁을 보더니 말했다.

“누가 의자 이렇게 해 뒀어?”

나는 모르는 척
우유만 마셨다.

그런데 엄마는
내 의자를 밀어
자기 옆에 붙였다.

그리고 달걀프라이에서
노른자가 예쁜 것을
내 밥 위에 올려 주었다.

아무래도

밤사이에
의자들이 정말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날 때

의자를
식탁 안으로 꼭 넣는다.

오늘 하루도
잘 들어 주었다고,

의자의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면서.



개구리 물통

황채연 인천이음초등학교 3학년 | 인천광역시

길을 걷다가 바닥에서
개구리 스티커를 주웠어

초록색 두 눈이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

들고 있던 내 물통에
스티커를 붙여봤더니

물통 안으로 개구리가
침범 들어가는 거야

뚜껑을 열 때마다
물통 속에서 개굴개굴

이제부터 내 물통은
개구리 물통이야



견언혁

권은혁 인천석암초등학교 4학년 | 인천광역시

할머니는 나를
언혁이라고 부른다
은혁이 아니고, 언혁이

나는 아주 오래
내 이름이 견언혁인 줄 알았다

틀린 이름은 아니다
언혁은
우리 할머니만 부르는 내 이름이다

“언혁아, 밥 묵어라”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부엌으로 얼른 뛰어나갔다

할머니 집은 낡고 오래됐지만
내가 마음껏 뛰고
소리쳐도 아무도 안 말렸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여름이 통째로 들어왔다
모기향 냄새
선풍기 바람
비 오는 날 냄새도
같이 들어왔다

한참 뛰다가
마당에 벌러덩 누우면
흙냄새도 났다

이제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언혁아”
하고 부르는 할머니 목소리는
아직 내 귀에 남아 있다

“언혁아”
그 이름 안에는
우리 할머니 집이 다 들어 있다



제 4 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결대로상

6편



금처럼 반짝이는 강

이도는 인천송원초등학교 2학년 | 인천광역시

반짝이는 금처럼 물이 빛나는 강
강에 금이 들어있나
강에 보석이 들어있나
강을 바라보니
강에 노오란 해가 들어있네
푸른 하늘과 초록 산들이 들어있네
이 세상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들어있네



사춘기

송희수 다대초등학교 5학년 | 부산광역시

부모님들은 말한다
“울면 사춘기”

부모님들은 말한다
“화내면 사춘기”

부모님들은 말한다
“억울하면 사춘기”

마치 로봇 같다
감정이 없는 로봇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인데

왜 로봇으로 키울까?



내 똥이 네 똥이 되는 날

— 내 똥아, 진실을 밝혀라

원율희 인천산곡북초등학교 5학년 | 인천광역시

학교 화장실 한 칸,
급한 마음은
물 내리는 소리마저
깜박 두고 나왔다.

잠시 뒤
뒤늦게 달려간 그곳.

그사이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셨다.

“누가 싼 똥이니?”

한마디가
화장실 가득 울렸다.

‘제 똥입니다.’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머뭇거리는 나를 보며
선생님께서는 웃으셨다.

“남이 싼 똥도
물을 내려 주는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날,
내 똥은
남의 똥이 되었고,
나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5학년.
나는 운명처럼
그 선생님의 반이 되었고,

반장 선거 어느 날

“반장이란?
남이 싼 똥 물도
내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말에
내 마음속 비밀이
다시 꿈틀거렸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의 똥은,
남의 똥이 아니라
제 똥이었습니다.

부끄러워

진실을 숨겼던

4학년의 수줍음 많았던 소녀

이제는 웃으며 고백합니다.

그날의 똥도,

그날의 거짓말도,

오늘은

웃으며 물처럼

내려보냅니다.

선생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시 짓기

정소율 계산초등학교 6학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도레미파솔라‘시’

너무 높아 어려운 음이다.

시 쓰는 것도 어렵다.



새롭게 만나!

김채민 서울잠일초등학교 6학년 | 서울특별시

오늘이 그날이야
징징거리며 따라온 너
알록달록 옷 입고
두 손 흔들며 인사한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야
그동안 고마웠어
책은 노트로 만나고
쇼핑백은 택배 상자로 만나자!

다음엔 예쁜 모습으로 만날까?
기대하고 있을게
잼병은 유리컵으로 만나고
콜라병은 주스병으로 만나자!

지구를 위해 새롭게
변신해서 시작해 봐
생수병은 티셔츠로 만나고
비닐봉지는 의자로 만나자!



말 되는 소리

이로운 인천구월서초등학교 6학년 | 인천광역시

숙제 다 하고 레고 하는데

놀이 말고 공부 좀 해

엄마 저는 지금 노는 게 아니라

레고를 연구하는 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영어 공부나 해

이번엔 마크하는데

아까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게임을 해

엄마 저는 지금 게임을 하면서

코딩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나가서 사회 문제집 풀고 공부해

나는 그런 엄마 말대로
밖에 나가서 사회 공부를 한다

왜 하란 공부는 안 하고
놀고! 간식 사 먹고?!

엄마 저는 밖에서 사회성을 키우고
간식을 사면서 물건 교류도 배우고
전 사회 공부를 한 게 맞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방으로 들어가시는 엄마

나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말 되는 소리
하며 자유롭게 놀았다



제 4 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세계로상

20편



녹아내리는 이불

장사윤 인천연송초등학교 6학년 | 인천광역시

히말라야 꼭대기
하얀 이불이
눈물처럼 녹아내려요.

누가 지구의 이불에
뜨거운 숨을 불었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린 컵 하나,
아직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남겨진 밥 한 숟가락.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히말라야의 눈물을 깨우고,
마을의 지붕을 삼키고
친구들의 내일마저 삼켜요.

오늘 내가 쓰는 컵 하나,
오늘 내가 입은 옷 한 벌,
오늘 내가 남기지 않은 밥 한 숟가락.

나의 작은 약속들이 모여
녹아내리던 히말라야에
다시 하얀 이불을 덮어 줄 거예요.



선생님께 달린 사과

이시현 송죽초등학교 2학년 | 경기도

내 친구들은 이상하다.

내가 그냥 사과하면 안 받아주는데
선생님께 이르고 나서 하는 사과는
아까 한 사과와 똑같이 해도 받아준다.

친구들의 기둥과 사과는
선생님께 달려 있나 보다.



마음의 안테나

임소윤 김포금빛초등학교 5학년 | 경기도

교실 구석 벽에 붙은 기계가
초록색 불빛을 깜빡거린다

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보이지 않는 안테나 네 개가
바쁘게 춤을 추며 켜진다

옆자리 짝꿍은 지우개만 콕콕 찌른다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좁은 어깨

벽 너머 신호는 귀신같이 잡는 폰이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 없는 신호는 자꾸만 놓친다

액정 불빛을 끄고 폰을 뒤집는다
내 마음의 비밀번호를 다 열어두고

짝꿍의 처진 표정 쪽으로
안테나 한 칸을 슬쩍 보내 본다.



할머니와 고추밭

장민경 인천정각초등학교 4학년 | 인천광역시

할머니와 엄마는 땀별
나랑 동생은 그늘에서
고추를 따고 고추를 담는다

빨간 고추는 삼촌
파란 고추는 엄마

낙타처럼 굽은 할머니 등
동그라미처럼 흰 할머니 다리

빨간 고추는 나
파란 고추는 동생

엄마 등이 할머니처럼 굽는 것은
눈에 맺힌 땀 때문일까

소나무 그늘 아래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앉아 참외를 먹는다
할머니랑 엄마 손이 따뜻하다



새싹

조영우 인천해든초등학교 5학년 | 인천광역시

난 새싹이야.

아직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 기다려봐,
곧 꽃을 피울 거니까.

하지만 가족은 벌써 열매가 맺기를 원해

나도 빨리 피우고 싶지만,
난 새싹, 아직 멀었어



독도와 우리집

박신혜 인천정각초등학교 2학년 | 인천광역시

방학 중 독도 체험관에서
만난 새들의 고향
독도

동도와 서도가
함께 있는
독도

경상도 어부들과
전라도 어부들이 함께 고기 잡는
독도

경상도가 고향인 아빠와
전라도에서 자란 엄마가 만나니
우리 집도 독도

아빠의 사투리와
엄마의 말투가 달라서 더 좋은
우리 집은 인천의 독도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장하우 익산궁동초등학교 3학년 |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아빠는 참 바쁘다.

일하다가도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땐 병원으로 달려오는
우리 집 슈퍼맨.

참관수업이나 학교 행사가 있는 날,

교실 뒤를 둘러보면

친구들 쪽엔 엄마들이 많이 서 있는데
우리 집엔 언제나
듬직한 우리 아빠가 서 있다.

주말마다 나와 오빠,
일곱 달 된 귀여운 동생까지 챙겨
놀이터로 나서는 길.
같이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휴, 아빠 힘들다.” 숨을 고른다.

어느 날, 일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은 아빠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딸, 아빠 좀 안아줄래?”

나는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갑자기 마음이 간질간질,
괜히 쑥스럽고 어색해서
못 들은 척 방으로 쑥 들어왔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나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도,
행사 날 교실 뒤에서 나를 보며 웃어줄 때도
아빠는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게
왜 그리 쑥스러웠을까.

다음에 아빠가 또
“아빠 좀 안아줄래?” 하고 부르면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품당 안겨야지.

아빠가 나를 안아 키워준 만큼
나도 내 작은 품으로
아빠를 꼭 안아드려야지.



딱지

허은강 인천은송초등학교 1학년 | 인천광역시

피가 나면

울타리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새살이 돋으면

울타리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칭찬 시장

정루아 인천삼산초등학교 5학년 | 인천광역시

비난 대신 칭찬 한 스푼으로
바꿔 주세요

왜 그랬냐 말고
위로로 해 주세요.

한 스푼, 한 스푼
나쁜 말만 넣으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요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로 듬뿍 채워주세요.
계산은... 노력으로 할게요!



상처와 상처

황서윤 인천검단초등학교 5학년 | 인천광역시

발을 내려다본다.
새하얀 양말이
누렇게 붉게 젖어있다.

양말을 벗는다.
살갍데기가 증발했다고
믿어도 될 정도로
까져있다.

피와 진물이 흐른다.
살짝 손을 대본다.
간지럽고, 아프다.

상처를 긁는다.
발의 상처가 아파서,
마음의 상처가 아파서
눈물이 난다.

남들과 다른 모습에
놀림받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 양말에는 피와 진물뿐만이 아니라, 눈물도 함께 묻어있다.

다시 새 양말을 꺼낸다.

몇 시간 후면 진물과 피로
범벅이 돼있겠지.

양말을 신는다.

매일 반복이다.



손톱

김서준 인천불로초등학교 2학년 | 인천광역시

똑똑

잘라도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손톱

똑똑

잘리고 잘려도

포기하지 않는 손톱

내 마음도

손톱 같길

속상한 일이 생겨

마음이 똑 잘려도

어느새 다시

툭툭 자라날 수 있게



어른들

허다윤 삼송초등학교 3학년 | 경기도

어른들은 지루하다

일어나고 아침 식사 먹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집에 오고
공부하고 저녁 식사 먹고 하루가 끝!

어른이 아이로 변하는 기계는 주말이다.

옷 갈아입고 침대에 벌러덩 눕고 게임을 한다
치킨, 피자, 떡볶이, 라면 먹고 놀 수 있다.

내가 어른이 될 땐 주말이 5일이고
평일이 2일이면 좋겠다.



왕할머니와 나

조민채 인천첨단초등학교 2학년 | 인천광역시

98세 우리 왕할머니
구부러진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천천히
발을 맞춰 걸어요.

다리가 힘든 날엔
왕할머니는 휠체어에 앉고
나는 뒤에서 살며시 밀어요.
산책길이 심심하지 않게
동요도 함께 불러요.

왕할머니 손이 심심하지 않게
풍선 말랑이도 만들어 드렸어요.
“물렁물렁 이상하다.” 하시면서
자꾸 만지작만지작

똑같은 그림도 짝 맞추고
끝말잇기도 하다 보면
왕할머니도 웃고
나도 웃어요.

왕할머니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나랑 같이 놀아요.



별뉘

류현아 인천능내초등학교 6학년 | 인천광역시

오늘도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길입니다.

또 길고 긴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햇볕이 저를 편히 비춥니다.

집의 바닥에 누웠습니다.

마치 잔디 위에 누운 느낌입니다.

커튼 사이로 별뉘가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인해 눈이 반짝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들입니다.



누나

박세환 불은초등학교 4학년 | 인천광역시

누나와 별거 아닌 일로
틱틱거리며 싸우고

화해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톡톡 계란을 깨서
스크램블을 만든다.

작은 접시에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무뚝뚝하게 톡

씨익 웃는 누나

오늘은 누나와 함께
놀 수 있겠다.



꼭 그렇진 않아요

오윤호 인천송명초등학교 4학년 | 인천광역시

꼭 그렇진 않아요
별이 빛나고 작다고,
하지만
큰 별도 있고 빛이 나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보면 6 뒤에서 보면 9라고,
하지만
어느 쪽에서 보든 ㄹ는 똑같아 보여요

꼭 그렇진 않아요
고개를 똑바로 들라고,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방긋하게 웃는 땅과 조그만 새싹들
고개를 하늘 높이 올리면
환하게 미소 짓는 하늘과 구름들

세상에 꼭 그런 것은 없어요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있을 거예요



박물관은 거대 일기장

안도현 인천예송초등학교 5학년 | 인천광역시

우가우가 원시인처럼 주먹도끼는
글씨 없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일기장

우하하하 대왕처럼 권력을 물건으로
나타낸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일기장

이압이압 다채능처럼 조각을 빈틈없이
만든 고구려 사람들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일기장

여러 방법으로
표현한 일기장

박물관은 여러 방법으로 남긴
일기장을 보관하는
거대 일기장 박물관

꼭 글씨로만 남기라는
법은 없으니깐



하늘의 가로등

김재이 서울둔촌초등학교 2학년 | 서울특별시

여러 개의 가로등 중 또 하나의 가로등
하늘에 둥그런 하나의 가로등

주문진 할머니 댁 논 위를 비추는 하늘의 가로등
별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이좋게 얘기하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별들과 함께 옹기종기

6월의 캄캄한 밤,
우리 가족 든든한 마음으로 밤길을 가라고
하늘에서 착한 마음으로 밝혀주지

언제나 빛나는 하늘의 가로등
별들과 하하호호 옹기종기



안경 속 엄마 아빠

김채아 한결초등학교 2학년 | 세종특별자치시

엄마 아빠 입에서 콧방-
잔소리 괴물을 불러올 때면
나는 마음속 요술 안경을 써요.

“책 읽어!” 버럭 소리칠 때도
안경을 쓰면
“네 꿈이 반짝이면 좋겠어”
예쁜 글자로 반짝이고,

“나중에!” 고개 돌릴 때도
“못 사줘서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또렷이 보이지요.

“빨리빨리!” 발을 동동 굴릴 땐
“너랑 1분이라도 더 놀고 싶어”
간지러운 이야기로 바뀌어요.

어른들 말은 호랑이같이 무서워도
알록달록 요술 안경만 쓰면
따뜻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요.

아하, 잔소리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면 쓰고 찾아온 거였구나!

이제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다 보여요.
내가 먼저 귀에 대고 말할래요.

“엄마 아빠, 안경 안 써도 다 알고 있어요!”



방패

최지우 인천서화초등학교 6학년 | 인천광역시

엄마의 잔소리를 막아 줄 수 있는 방패가 어딤지
찾고 찾다 보니
아빠!
아빠 한 번만 도와주라



제4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미래로상

20편



예전엔 토끼 지금은 거북이

신한결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4학년 | 베트남

토끼와 함께 학교 가는 길

늦었다며 나를 끌고 가던 활발하고 빨랐던 토끼

같이 수다 떨며 같이 걸어가던 즐거운 등굣길

행복한 3월, 토끼와 함께한 등굣길

거북이와 함께 학교 가는 길

늦었다고도 하지 않고 매일 축 처지며 내가 끌고 가야 하는 거북이

5분이 10분 되고 점점 더 느려져 15분이 된 힘든 등굣길

우울한 9월, 거북이와 함께한 등굣길

왜 토끼는 거북이가 된 걸까?

거북이를 다시 토끼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

항암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 거북이는

다시 토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번 성탄절엔 토끼를 선물로 달라고 산타할아버지께 편지해야지.

아픈 거북이 안녕~!!! 건강한 토끼야 안녕~♡

(Bye) (Hello)



여행

허다원 코원재인니한글학교 3학년 | 인도네시아

아빠는
운전만 해

엄마는
핸드폰만 해

언니는
게임만 해

나는
지루해

같이
신나게 가면 안 돼?



내 동생

김산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5학년 | 베트남

내 동생 김민
엄마, 아빠 몸에 새긴 검은색 문신
나를 따라다니는 검은 그림자
내놓기 부끄러운 울퉁불퉁 못난 돌

하지만

내 동생 김민
엄마 목에 걸려 있는 하얀 진주 목걸이
아빠가 사랑하는 유일한 공주
내 가방에 걸려 있는 무지개 키링
모르는 사람 없는 동네방네 유명인



나의 온기

김채민 탄자니아다레살람한글학교 5학년 | 탄자니아

누군가는 따뜻해서 맛있다고 하겠지
누군가는 따뜻해서 핫팩으로 쓰겠지

근데 나를 먹지도,
쓰지도 않고,
종이봉투에 담아
동생 가방에 넣어버린 언니

하지만 그 가방의 주인은
내가 맛있어서
내가 따뜻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늦은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처럼,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처럼,
나, 붕어빵의 온기로 동생의 방을 밝혀주는 행복이 되었다.



네잎클로버는 여유다

박서안 몬트리올가나다한국어학교 5학년 | 캐나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잎만 있으면 다인가?

그러면 운이 담겨 있는 건가?

그건 다 틀렸어

내 세 번째 잎까지는 사랑 아니면 행복

하지만 네 번째는 여유다

누가 토끼풀을 쳐다볼 여유가 있을까?

아이들은 쿵쿵 뛰어가고 어른들은 성큼성큼 가버린다

나 자체는 운이 아니다

나는 여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네번째 잎은 운을 나타내지는 않아도 운을 보여준다

여유가 처음부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등한 세상

이해리 방콕한국국제학교 5학년 | 태국

다크 초콜릿도 초콜릿인데
화이트 초콜릿도 초콜릿인데

초콜릿 색깔만 다르고
같은 초콜릿인데

사람도 피부색만 다르고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다고 차별하는 걸까?
어차피 다 같은 사람인데



터져도 삼각 김밥

전채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6학년 | 베트남

잘못 뜯은 삼각김밥
뒤늦게 수습해보지만
이미 터질 대로 터져버린 나의 삼각김밥

얼른 두 손으로 주워 보지만
내 두 손으로는 역부족

그때 엄마가 손에 쥐여주신 숟가락
그 숟가락으로 접시에 흩어진 밥알들을 모아본다.

조금 터지고
조금 흩어졌지만

한입 먹어보니 내가 아는 그 맛

터졌어도 내 점심
터졌어도 내 삼각 김밥



김치와 쌀국수의 나라

심소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5학년 | 베트남

예지의 나라는 두 나라
라면에 김치를 올려 호로록 먹고
꿔이를 쌀국수에 적셔 후루룩 먹고
두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내 친구

사람들의 낯선 눈초리가 예지를 찌르면
마음은 파랗게 물들고
눈물은 그렁그렁
표정은 시무룩해지지만

두 나라의 예지는
매운 김치에 쌀국수를 먹고
설날에 한복을
뗏에는 아오자이를 입고

한국어로 도란도란
베트남어로 종알종알
얘기를 나눌 줄 아는
다정한 내 친구



마니또

엄시하 프놈펜한국국제학교 6학년 | 캄보디아

우리 반에서 다 같이 하기로 한 마니또

친구들의 책상 서랍엔

마니또의 선물들이 쌓여가

몰래몰래 착한 일을 해주는 마니또

살금살금 도와주는 마니또

다음 날이 되면

과자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유준이

천 원을 받았다고 누가 이런 걸 주냐는 수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짜증 내는 우주와 민지

누가 누구의 마니또일지 추리하는 용훈이와 나

교실이 시끌시끌, 시끄러워지기 시작해

서로서로 반응은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지 몰라



기후 딱지

문서원 폴란드브로츠와프한글학교 4학년 | 폴란드

엇! 앓! 응?!

이 모든 소리는!

기후딱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소리

엇!

내가 불 켜 놓고 간 방에

물 틀어 놓은 세면대에

문 안 닫은 냉장고에

붙은 기후딱지

앓!

아무리 떼려고 해도 딱 붙은

기후딱지

‘아, 내가 낭비했구나!’ ‘아, 내가 마구 썼구나!’

마음에 회초리를 맞은 채 생각에 잠긴다.

응?!

그 순간! 지구도 생각에 잠긴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차가운 것을 올려도

뜨거운 불이 붙은 초록별 지구

이젠 모든 사람들 등에 붙은 기후딱지

아! 아하! 역시!

옹고집 닮은 기후딱지

내가 나서서 떼야지!

내 마음에 밴 낭비의 수도꼭지를

꼬옥 잠가야지!



나무의 옷장

김예린 와이카토한국학교 Year 5-6 | 뉴질랜드

겨울, 여름, 봄, 가을
내 나무는 옷을 갈아입는다
봄, 가을, 겨울, 여름
모습은 계속 바뀐다
봄, 가을, 여름, 겨울
예쁘고 따스한 내 나무

여름에는 밝고 행복한 라임 초록색 드레스를
꺼내 입는다
초록 초록 드레스 자락이
바람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나무는 꼭 잡아 지키고
우뚝 서서 자랑을 한다

가을에는 노랑, 빨강, 갈색 스웨터
따뜻하고 구름처럼 포근포근한 스웨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스 따스
마치 뜨거운 핫초코가 내 몸 안으로
살살 들어가는 느낌이다

봄에는 꽃이랑 과일 프린트 스커트를 뽐낸다
화려한 이 스커트는 밝고 부들부들
해보이는 멋진 작품이다
탐스러운 과일들은 보기만 해도
내 입에서 चु추는 기분이 난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에는 입을 옷이 없다
혼자 아무것도 없이 추운 겨울을 살아야 한다,
옷도 없고 힘도 없고 나무는 축 처진다.
그러자 새가 와서 말해준다.
“괜찮아 다음 여름이 오면 넌 또 예뻐지잖아”



어른들은 몰라요

김도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5학년 | 베트남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

조용히 있으면,
“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대답을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한다.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오면,

텅텅 빈 식탁이 기다린다.
나는 밥 먹으러 나왔는데,
항상 수저만 놓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어린이가 처음이고,
어른들도 어른이 처음일 테니깐.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잡은 연필

권소연 푸네한글학교 5학년 | 인도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
또 틀렸다.

종이는 점점 구겨지고
내가 지운 자리에는
연필 자국이 남았다.
나만 계속 틀리는 것 같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연필을 내려놓았다.

가만히 멍뚱멍뚱
문제지를 보았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틀린 자국이 참 많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내가 계속 풀고
지우고 또 풀었던
흔적이었다

내가 노력하고
도전한 흔적이었다.

다시 연필을 잡았다.

한 문제...
한 문제...
또 한 문제...

또각또각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풀었다.
딩동댕동 시험이 끝났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문제를 풀려고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는지...

정답에는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남지만

틀린 문제에는
내가 다시 풀어본
흔적이 남아 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다시 잡은
연필처럼
다시 또 도전하는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



별빛

신민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3학년 | 베트남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하늘에
작은 별빛이 반짝 피어난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반짝이는
작은 희망 하나

지친 하루 끝에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별빛은 살며시
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속삭이듯 말한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이 어두웠다면
내일은 조금 더 밝기를

저 작은 별빛처럼
나도 천천히, 조금씩
빛나고 싶다



신호등 할아버지

유제이 대련한국국제학교 6학년 | 중국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그 자리에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서 계신
신호등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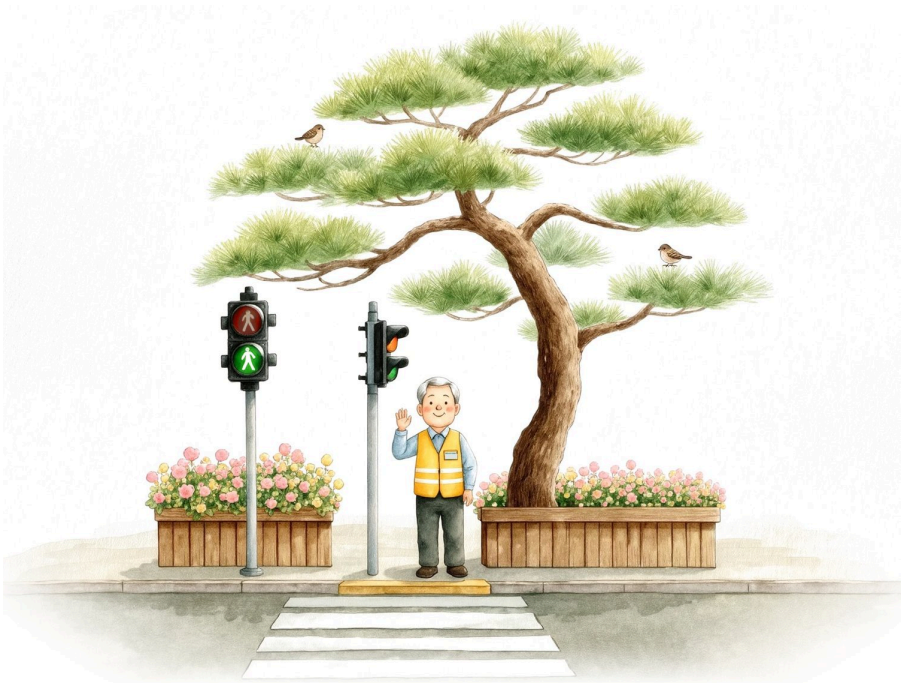
몇 학년이나?
어제도 물어보시고
오늘도 물어보시는
깜박깜박 신호등 할아버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히 건너라
학교 잘 다녀와라
엄마처럼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신호등 할아버지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하면
언제나 밝게 인사해주시는
신호등 할아버지

오늘도 신호등 할아버지 만나고
학교 가는 길

등곶길 내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따뜻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가족들과 아름다운 바다

이수민 방콕한국국제학교 3학년 | 태국

바다야 안녕?
파도도 철썹철썹
씩씩한 파도 인사
예쁜 조개도 소곤소곤
수줍은 조개 인사
바람이 휘휘
시원한 바닷바람
즐거운 바다 노랫소리
모래를 뭉쳐
모래성 만들고
시원한 바다에
발 담가 보고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바다



우리는 형제

권순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6학년 | 베트남

밖에서는 모른 척
하지만
속으론 챙기는
우리

학교에선 모른 척
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챙겨주는
형

까불기는 하지만
집에 활력을
찾아주는
동생

슬플 때는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혼날 때에는
한 명이
되는
우리는
형제다.



세상 어디

신수현 방콕한국국제학교 2학년 | 태국

샤워기에서 나온 이 물,
세상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이 약,
세상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의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
세상 모든 것에 색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 안에 세상이 있다.



우리 아빠

김가령 하노이한국국제학교 3학년 | 베트남

우리 아빠 회사에 가신다
아침도 일하고 밤에도 일한다
우리 아빠는 자석같이 회사에 붙는다
집에 와서는 ‘예구, 힘들어라’ 한다



바람은 어디 갔을까?

황예린 홍콩토요한글학교 1학년 | 홍콩

매년 여름
우리 가족이 찾는 발왕산.

바람을 쫓아
높이높이 오르면
어느새 산 정상.
바람이 쌩쌩,
모자가 휘휘!

바람이 가져갈뻔한
내 파랑 모자.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사라진 산바람.
“바람아, 어디 갔니?”
바람이 없어지자
시원했던 산꼭대기에서도
땀이 줄줄.

쌩쌩 불던 바람은
우리보다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갔나 봐요.



수상자 명단

상	이름	학교	학년	지역	작품
대상	박선우	동산초등학교	2학년	서울특별시	레드리본 맛집
올바로상	김가빈	갈매초등학교	3학년	경기도	우리 집 의자는 다 알고 있다
올바로상	황채연	인천이음초등학교	3학년	인천광역시	개구리 물통
올바로상	권은혁	인천석암초등학교	4학년	인천광역시	건언혁
결대로상	이도은	인천송원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	금처럼 반짝이는 강
결대로상	송희수	다대초등학교	5학년	부산광역시	사춘기
결대로상	원율휘	인천산곡북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	내 똥이 네 똥이 되는 날
결대로상	정소울	계산초등학교	6학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 짓기
결대로상	김채민	서울잠일초등학교	6학년	서울특별시	새롭게 만나!
결대로상	이로운	인천구월서초등학교	6학년	인천광역시	말 되는 소리
세계로상	장사윤	인천연송초등학교	6학년	인천광역시	녹아내리는 이불
세계로상	이시현	송죽초등학교	2학년	경기도	선생님께 달린 사과
세계로상	임소윤	김포금빛초등학교	5학년	경기도	마음의 안테나
세계로상	장민경	인천정각초등학교	4학년	인천광역시	할머니와 고추밭
세계로상	조영우	인천해든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	새싹
세계로상	박신혜	인천정각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	독도와 우리집
세계로상	장하우	익산궁동초등학교	3학년	전북특별자치도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세계로상	허은강	인천은송초등학교	1학년	인천광역시	딱지
세계로상	정루아	인천삼산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	칭찬 시장
세계로상	황서윤	인천검단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	상처와 상처
세계로상	김서준	인천불로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	손톱
세계로상	허다윤	삼송초등학교	3학년	경기도	어른들
세계로상	조민채	인천검단초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	왕 할머니와 나
세계로상	류현아	인천능내초등학교	6학년	인천광역시	별뿔
세계로상	박세환	불은초등학교	4학년	인천광역시	누나

상	이름	학교	학년	지역	작품
세계로상	오윤호	인천송명초등학교	4학년	인천광역시	꼭 그럴진 않아요
세계로상	안도현	인천예송초등학교	5학년	인천광역시	박물관은 거대 일기장
세계로상	김재이	서울둔촌초등학교	2학년	서울특별시	하늘의 가로등
세계로상	김채아	한결초등학교	2학년	세종특별자치시	안경 속 엄마 아빠
세계로상	최지우	인천서화초등학교	6학년	인천광역시	방패
미래로상	신한결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4학년	베트남	예전엔 토끼 지금은 거북이
미래로상	허다원	코원재인니한글학교	3학년	인도네시아	여행
미래로상	김산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5학년	베트남	내 동생
미래로상	김채민	탄자니아다레살람한글학교	5학년	탄자니아	나의 온기
미래로상	박서안	몬트리올가나다한국어학교	5학년	캐나다	네잎클로버는 여유다
미래로상	이해리	방콕한국국제학교	5학년	태국	평등한 세상
미래로상	전채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6학년	베트남	터져도 삼각 김밥
미래로상	심소윤	하노이한국국제학교	5학년	베트남	김치와 쌀국수의 나라
미래로상	엄시하	프놈펜한국국제학교	6학년	캄보디아	마니또
미래로상	문서원	폴란드브로츠와프한글학교	4학년	폴란드	기후 딱지
미래로상	김예린	와이카토한국학교	Year 5-6	뉴질랜드	나무의 옷장
미래로상	김도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5학년	베트남	어른들은 몰라요
미래로상	권소연	푸네한글학교	5학년	인도	다시 잡은 연필
미래로상	신민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3학년	베트남	별빛
미래로상	유제이	대련한국국제학교	6학년	중국	신호등 할아버지
미래로상	이수민	방콕한국국제학교	3학년	태국	가족들과 아름다운 바다
미래로상	권순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6학년	베트남	우리는 형제
미래로상	신수현	방콕한국국제학교	2학년	태국	세상 어디
미래로상	김가령	하노이한국국제학교	3학년	베트남	우리 아빠
미래로상	황예린	홍콩토요한글학교	1학년	홍콩	바람은 어디 갔을까?

제4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수상作品集

인성 연계 읽김쓰와 함께하는 「제4회 어린이 동시 쓰기 공모전」

퍼낸 날	2026년 10월
퍼낸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엮은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수록	수상작 50편 (대상 1 · 올바로상 3 · 결대로상 6 · 세계로상 20 · 미래로상 20)
삽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그렸습니다.
글꼴	마루 부리(네이버), KoPubWorld돋움체(한국출판인회의), 인천교육힘찬체·인천교육소통체(인천광역시교육청)

작품은 상별로 묶었고, 같은 상 안에서는 수상작 명단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학교명은 정식 교명으로, 학년과 지역은 2026년 응모 당시를 기준으로 적었으며, 재외 어린이는 학교가 있는 나라를 적었습니다.

작품은 수상자가 제출한 원문을 바탕으로 실었습니다. 행과 연의 나눔, 어린이의 말투와 시적 표현은 원문 그대로 살렸고,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맞춤법·띄어쓰기 오류만 바로잡았습니다.

손으로 쓴 작품은 원본을 보고 옮겨 적었으며, 원본의 글씨와 그림은 「수상작 모음」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동요로 만든 시’ 표시가 있는 다섯 편은 동요로 만들어 학교와 가정에 보급합니다.

삽화는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그린 것으로, 작품을 쓴 어린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은 각 작품을 쓴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책에서 읽고 길에서 본 것,
마음에 담아 둔 것을 시 한 편으로 피워 낸
어린이 신 명의 동시를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